

객병중에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결핵

오대규 / 국립소록도병원 원장

세 상을 온통 삼켜 버릴 것처럼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엄중한 계절의 순리 앞에 겸손히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겨울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문을 열고 가만히 서 있노라면 스산한 바람이 스친다. 도시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스산하다'는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이곳 소록도(小鹿島)에서 새롭게 느껴 본다. 박성룡(朴成龍) 시인은 그의 시「풀잎」에서, 우리가 '풀잎'하고 부르면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도 푸른 풀잎이 되어 버린다고 노래했는데, 마찬가지로 '스산하다, 스산하다'라고 자꾸 말하면 어느덧 우리의 몸 속에는 가득히 바람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나뭇굴던 낙엽들이 새생명을 위해 묻혀있다.

저녁 무렵의 겨울을 이토록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다. '스산하다'면 자칫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 들뿐 했을 텐데 말이다. 또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홀로 느낄 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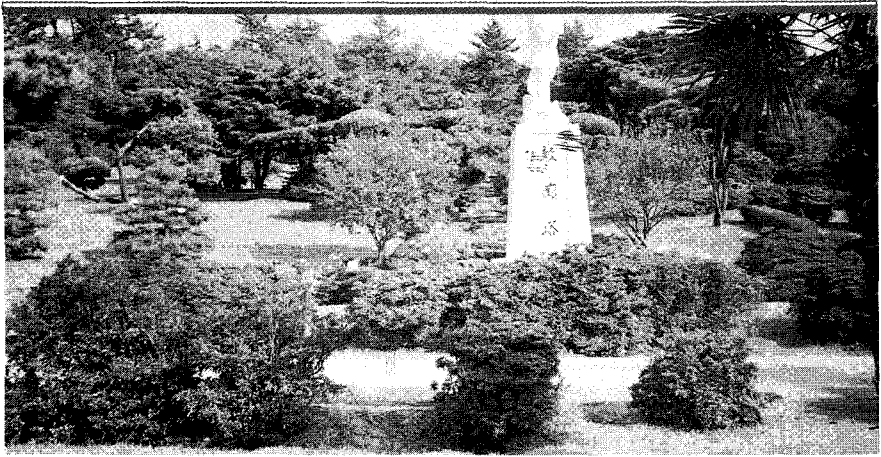
고요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향기로운 일인가.

소록도(小鹿島)는 그 이름만으로도 언제나 신비스러운 곳이다. 「작은 사슴 섬」이라니……. 이 섬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 모양이 새끼 사슴처럼 생겨서 그렇다는 설과, 또 하나는 어미 사슴에 붙어 있는 새끼의 모습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섬의 모양이 큰 뿔을 가진 작은 사슴처럼 생겼고, 또한 섬으로 들어오는 육지의 이름이 녹동(鹿洞)이니 말이다.

그 이름의 유래야 어떻든 이곳 사슴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로 사슴처럼 살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혹 사슴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즉, 사슴처럼 사는 것은 신화(神話)처럼 사는 것인데 사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만든 신화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라고…….)

국립소록도병원(國立小鹿島病院)은



소록도 전경.

1916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이주된 100여명의 환자들에 의해 자혜의원(慈惠醫院)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일찌기 작가 이청준(李靑俊)은 이 섬을 가리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였다.

비록 그 소설 속에서 충분히 암시하고는 있었지만 이 섬에 오기 전, 그리고 온 후에도 얼마 동안 나는 왜 이토록 아름답고 작은 섬이 『우리들의 천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인가에 대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은 이 섬이 지나온 발자취를, 섬 곳곳에 널려 있는 지나간 삶의 흔적들을 확인하는 순간 이내 쉽게 풀리고 말았다. 섬 전체를 일주하는 순환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한 겨울의 꽁꽁 언 땅을 맨 손으로 파고, 갯벌을 메워 중앙 운동장을 만들었으며, 동생리 선창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고, 특히 소록도를 무슨 국립공원쯤으로 오인하게 하는 중앙공원을 만들기 위해 3년여 동안 쉬 없는 강제 노동에 하루 3~4명씩 죽어 갔으며, 지금

은 없어진 벽돌 공장에서 하루 수만장의 벽돌을 찍어내야 했던 참혹한 역사를 어찌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이러한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섬이 본래부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얼마 전부터는 드러내 놓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섬에 놓여진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조각 어느 것도 앞서간 환자들의 손길, 피와 땀, 눈물, 그리고 한맺힌 죽음과 바꾸지 않은 것이 없거늘…….

얼마전, 강원도 원주에서 박경리(朴景利)선생께서 『토지(土地)』를 집필하셨던 집이 도시계획에 의해 헐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문화 예술인과 시민들이 이를 합심반대하여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보았다.

원주 시민들에게 보내는 갈채가 들렸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섬의 미래를

헤아려 보게 되었다. 물론 위대한 작가와 한 섬을 대비한다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만령당에 잠들어 있는 일만의 영혼과 78년의 역사 앞에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쇄된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보니 때론 사투리들이 섞여, 혹은 노인들만의 억양으로, 또는 일상에서 생겨난 은어(隱語)같은 이 곳만의 독특한 언어들에 가끔 들을 수 있다.

이 병원에 와서 처음 들은 낯선 단어가 가릿데였다. 이는 병력기록지인 차트(chart)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차트가 어떻게 '가릿데'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 곳에서 30년 넘게 봉사하고 계신 마리안나, 마가렛트 두 오스트리아 수녀님들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짐작되었다.

이 분들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이고 독일어로는 차트를 카르텔로 발음하니, 카르텔이 독일어에 무관한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가릿데가 된 것이었다.

'마목'이라는 말도 이 곳에서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원래 마목(魔木)이라는 말은 한의학(韓醫學)에서 쓰이는 용어로 '근육이 굳어져 감각이 없어지는 병' 또는 '나병의 증세로 살갓이 허는 자리'를 뜻하는데 이 곳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합하여 통산 신체 어느 부위의 감각이 없어졌을 때 '마목들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 소록도에서만 쓰이는 여러 말

들이 있으나 가장 빛나는(?)말로 '객병'이라는 말이 있다. 이곳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병 이외에도 위장병 등의 내과적인 질환, 궤양과 같은 외과적인 질환들을 한 두 가지씩 더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하여 입원의 동기가 된 주병(主病)인 나병은 '본병(本病)'이라 부르고 본병 이외의 다른 질환은 바로 손님병인 객병(客病)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객병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병은 결핵(結核)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마치 일반 사회인들이 나병환자를 경원시하듯 이 섬에서는 결핵 환자를 멀리하여, 나환자 중에서도 결핵 환자들은 무슨 몹쓸 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당하였다.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니었을까.)

병원에서는 결핵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결핵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활동성 결핵 환자들을 그 곳에 따로 거주하게 하였는데 환자들은 이 결핵병동 입원을 극도로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전체 나환자 흉부 엑스선 간접촬영 시에는 자신이 결핵에 걸린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리 촬영을 보내곤 하여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은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왕에 결핵 병동에 입원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떤 병동보다도 화목한 생활을 하였는데, 병동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미스 TB사(舍) 선발대회'를 여는 등 매우 모범적인(?) 병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결핵 병동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병동이 있는 한 계속되는 결핵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몇 년 전 폐쇄되었으며, 극소수의 결핵환자들은 재가(在家)치료를 하고 있다.

거의 매년 소록도병원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위로를, 직원들에게 격려를 주곤 한다. 그럴 때마다 이 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한 직원이 비유로 들려준 일화 하나가 그들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아이를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했다 한다. 요즘 아이들치고 취학 전에 웬만한 한글, 숫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는 지라 몹시 걱정되고, 남보기도 부끄러웠는데,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아이를 본 선생님은 뜻밖에도 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더니 “네가 진짜 국민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라며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크게 안도하고 돌아왔는데, 이 후 몇 달이 지나도 아이는 여전히 글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래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 놀랍게도 학교에서는 글자를 다 아는 대부분의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는 진짜 열등생으로 낙인 찍혀 소외되어 있었으며, 덩달아 아버지 자신마저도 너무나 무능하고 열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었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설명은

사족(蛇足)일 것이다.

소록도에서 바라보는 별은 유별나게 아름답다. 찬란하다는 표현이 그토록 잘 어울릴 수가 없다. 많고 많은 별의 숫자도 그렇거니와 선명하기 그지없는 별 하나 하나의 반짝임도 어느 곳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인지 하늘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에 있는 교회의 이름에도 별이 들어 있다. 신성(新星)교회, 동성(東星)교회, 남성(南星)교회 등등. 어디 교회 이름뿐이라, 소록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별을 안고 산다. 또한 어쩌다 이 섬을 떠날 때에도 가슴 가득 별을 안고 떠난다. 누군가와 만나 소록도에 관한 추억을 나누노라면 언제든 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며 그것이 이 섬을 살았던 이들의 마음을 늘 포근하고, 부드럽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저 하늘에, 그리고 이 「작은 사슴 섬」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수많은 별들이 찬란히 빛나는 한 언제까지나 이 섬과 섬 사람들은 섬 안에 무리지어 사는 사슴처럼, 섬 곳곳에 가득 피어 있는 동백꽃처럼 살아갈 것이다.

“사슴이여 살아 있는 사슴이여/지금 사슴으로 살아 있는 것은/얼마나 행복하나/꽃이여 동백꽃이여/지금 꽃으로 살아 있는 것은/얼마나 아름다우나/”

(이생진(李生珍)시집-「그리운 바다 성산포」 중 「넋」일부)